

시험해 보기 바란다.

이 차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regular red bush(rooibos) tea이고, 둘째는 green rooibos tea 이다. Green 이 fermentation을 하지 않아서 더 antioxidant가 풍부하다고 한다. 물론 좀 더 비싸다. 하지만 건강을 돈으로 따질수 있을까? 독자들의 결정에 맡긴다.

미국에서 현재 450,000,000 cup의 coffee 를 매일 마신다고 통계가 나왔다. 어떤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고 하루 종일 마셔대니 이 수가 맞을지도 모른다. 미국의 제일 큰 수입품목이 oil이고 둘째가 coffee라는 데 연간 \$4 billion어치 커피를 사들인다. 또 습관성이든, 중독성이든 정신 없이 마시니 문제는 문제이다.

옛날에 대영제국 과 청나라간의 아편전쟁이 일어났었는데 독자들 가운데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한다면 그 사연은 이렇다. 1800년대에 영국은 산업혁명 후 세계의 강국으로 군림하게 되었고 tea(차)문화가 발달하여 차 수입량이 급증하였다. 그 차가 다름 아닌 청나라 것이었다. 영국은 수입량이 수출양에 비해서 격심한 차가 생기자 관세를 높여 이 문제를 해결코자 했지만 실패했다. 큰 고민에 빠진 영국은 마지막으로 아편을 수출하는 묘안을 내서 그것으로 무역불균형을 완화 시켰다. 1729년에 200상자의 아편이 청국으로 수출되던 것이 1838년에는 무려 2만 상자로 늘어났다. 청나라에는 수백만 명의 아편 중독자가 생겼고 어떤 중독자는 부인을 팔아 아편을 먹었다는 풍문도 나돌았다. 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청나라는 문제의 아편들을 몰수하여 폐기하였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홍콩이 156년이란 긴 세월동안 영국의 통치하에 있게 되었다. 이런 치욕을 당했던 청나라는 굴욕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들 가슴에 남겼는데 현재는 어떤가? 지금의 중국은 청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는 강국으로 발전했고 세계 어떤 나라도 감히 중국을 향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도 산더미 같이 엄청난 빚을 중국에 지고 있으니 큰 두통거리이다.

미안하게도 또 셋길로 빠졌는데 아래 도표는 coffee, tea 등에 caffeine량을 조사한 것이다.

### Coffee

Type of coffee	Size*	Caffeine**
Espresso, restaurant-style	1 oz. (30 mL)	40-75 mg
Espresso, restaurant-style, decaffeinated	1 oz. (30 mL)	0-15 mg
Generic brewed	8 oz. (240 mL)	95-200 mg
Generic brewed, decaffeinated	8 oz. (240 mL)	2-12 mg
Generic instant	8 oz. (240 mL)	27-173 mg
Generic instant, decaffeinated	8 oz. (240 mL)	2-12 mg
McDonald's brewed	16 oz. (480 mL)	100 mg
McDonald's Mocha Frappe	16 oz. (480 mL)	125 mg
Starbucks Latte	16 oz. (480 mL)	150 mg
Starbucks Pike Place brewed	16 oz. (480 mL)	330 mg
Starbucks Pike Place brewed, decaffeinated	16 oz. (480 mL)	25 mg

### Tea

Type of tea	Size*	Caffeine**
<b>Brewed tea</b>		
Black tea	8 oz. (240 mL)	14-61 mg
Black tea, decaffeinated	8 oz. (240 mL)	0-12 mg
Green tea	8 oz. (240 mL)	24-40 mg
<b>Iced tea</b>		
AriZona Iced Tea, lemon-flavored	8 oz. (240 mL)	11 mg
Generic instant, unsweetened	8 oz. (240 mL)	26 mg
Lipton Brisk Lemon Iced Tea	8 oz. (240 mL)	5-7 mg

### Other products

Type of product	Size	Caffeine*
<b>Sweets</b>		
Chocolate chips, semisweet	1 cup	104 mg
Dark chocolate-coated coffee beans	28 pieces	336 mg
Foosh Energy Mints	1 mint	100 mg
Hershey's Kisses	9 pieces	9 mg
<b>Medications</b>		
Excedrin, Extra Strength	2 tablets	130 mg
NoDoz, Maximum Strength	1 tablet	200 mg

### Energy drinks

Energy drink	Size*	Caffeine**
5-Hour Energy	2 oz. (60 mL)	207 mg
AMP, regular or sugar-free	8 oz. (240 mL)	72-74 mg
Cran-Energy	8 oz. (240 mL)	70 mg
Full Throttle	8 oz. (240 mL)	70-72 mg
Monster	8 oz. (240 mL)	80 mg
Red Bull	8.4 oz (250 mL)	76-80 mg
Rockstar, regular or sugar-free	8 oz. (240 mL)	79-80 mg
Vault, regular or sugar-free	8 oz. (240 mL)	47 mg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Sun 4:00-9:30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24-Hour  
Customer Service

**Armani Mansour**  
Licensed Sales Producer  
The Keller Agency

**Allstate Insurance Company**  
6321 Riverside Plaza Lane NW  
Albuquerque, NM 87120

Phone 505-898-8565  
Fax 505-898-7674  
armanimansour1@allstate.com

이것들을 살펴보면 green tea에 카페인이 24-40mg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커피와 거의 비슷한 양이다. 그러므로 그린티 애호가들은 그린티 안에 있는 엔터옥시탄트와 영양소에만 집착하면 안 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카페인이란 것도 기억해야 한다. 참고로 caffeine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에 삽입했다. 어린애들이 자주 먹는 soft drink에 그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7-up, Sprite, Mountain Dew, Ginger Ale 등에는 caffeine이 없다. 내가 선호하는 rooibos tea를 시험해 보셔도 좋겠다.

### Signs and Symptoms of Caffeine Intoxication or Abuse

nervousness	headache	increased heart rate
anxiety	upset stomach	irregular heartbeat
irritability	GI irritation	elevated blood pressure
agitation	heartburn	increased cholesterol
tremors	diarrhea	nutritional deficiencies
insomnia	fatigue	poor concentration
depression	dizziness	bed wetting.

### Caffeine Withdrawal Symptoms

headache	constipation	runny nose
craving	anxiety	nausea
irritability	nervousness	vomiting
insomnia	shakiness	cramps
fatigue	dizziness	ringing in the ears
depression	drowsiness	feeling hot and cold

우리들이 Steve Jobs가 몇 달 전에 안타깝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Apple computer 설립자였다. 그는 발명가로, 기업가로 알려진 분이다. 56세에 생을 마친 것이다. 한참 일할 나이였는데. 그런데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자기 건강에 너무 고집을 부렸다는 것이다. 돈도 많은 분이었는데 Pancreatic cancer를 식이요법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고 고집했다고 한다. 내가 말하는 것도 일종의 식이요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의학을 외면해도 안 된다. 식이요법에도 한계가 있고 현대의학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다. 나는 심사숙고하며 쓰기는 했지만 혹여나 잘못된 내용을 남기지 않았나 걱정도 된다.

송구영신, 새해 아침이 왔는데 독자들은 무엇을 꿈꾸고 계획하는지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으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나 할까.

어떤 조직에서든지 team work이 잘 실행되어야 번창하고 발전한다. 비즈니스나 교회도 마찬가지다. 가정도 공공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들은 독불장군으로 따로 살 수 없고 세상에 늘 속해 있기 때문에 team work의 아쉬움을 더 느낄 때가 있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 임진년 새해에 TEAM WORK 이 잘 실천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Facio Ergo Sum( 화치오 에르고 숨). “나는 행동 한다. 고로 나는 존재 한다.” 이것은 우리 감리교회의 표어이다. 여기에서 team work을 넣어서 “나는 함께 행동한다. 고로 함께 존재한다.”라고 외치고 싶다.

## 2011년 NLMC 피택직분자 훈련 섬김의 결단 - 어떻게 섬길 것인가!

New Life Church in Denver  
최 건 영 장로

한 4개월, 직분자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섬김을 위한 덕목이 우리나라 속담처럼 서 말은 되는 것 같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이제는 켈 차례이다. 그러나 섬김의 결단 이전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다. 일찌기 공자는 사서 삼경중 하나인 “대학”이라는 책에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을 하였다. 수신(修身)이 뒷받침 되지 않은 제가(齊家)가 의미가 없듯이 섬기는 직분자의 성품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섬김의 결단이 뛰어나도 그 섬김은 모래위에 세운 집에 불과할 것이다. 내게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는 성경말씀이 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라고 하였다. 바로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각 개인의 성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착해야 한다. 요즘 착하다고하면 바보라는 의미로 쉽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해야 한다. 바나바와 같이 착한 성품이 있었기에 (행11:24) 바울이 역사에 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디모데가 사람들로 부터 칭찬을 받게 된 것도 그의 안에 착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다음의 의로움과 진실함은 서로 통하는 성품이라고 생각한다. 의로우면 진실해야하고 진실하면 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살긴 하지만 역시 내게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또한 한국적 선비의 곧은 품성이 아직은 더 좋다. 의로움이나 곧은 품성을 생각할 때 즐겨 암송하는 옛 시조가 있다. 고산 윤선도의 “오우가” 중에서 대나무에 관한 시조이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식이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THE  
INGLES  
Company  
Realtors



최 귀 분

■ Office: 505-828-1366

■ Fax: 505-828-0773

■ Cell: 505-249-8686

■ E-mail: guiboon@msn.com

6711 Academy Rd., NE Suite B, Albuquerque, NM 87109

예수님께서서는 “인자가 온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하고...”(막10:45)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많은 직분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신 진리이다. 그러나 “섬긴다”라고 할 때 무턱대고 섬기자! 라고 한다면 구체성이나 방향성이 없을 뿐 아니라 나중에 땀겨 될 열매도 불확실하게 될 수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지난 4개월 동안 배운 덕목만 생각하여보아도 아볼로 성경공부를 필두로 해서 간간히 목사님께서 주신 지도자의 요건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읽은 존 스토틀 목사의 “제자도”에 나와있는 덕목까지 합친다면 족히 수십 가지는 될 것이다. 그러니 이쯤에서 간단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역시 장로의 몇 가지 모델로부터 섬김의 구체적 모습을 얻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

장로의 모델로 세분을 생각하여 보았다. 이것은 어느 한 순간에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생각하여 온 분들이다. 첫째는 성경속의 인물이요, 둘째는 현세에 실존하는 인물이 아닌 소설속의 인물이다. 그리고 세 번 째 마지막으로 현세에 실재하는 인물로 지금도 살아계시다.

첫째 성경속의 인물은 가이오 (Gaius) 장로이다. 왜 하필 많고 많은 성경속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가이오 장로인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중 베드로나 요한 아니면 구약 속 요셉, 다윗, 다니엘 등등 생각해 보면 목격한 인물들이 많이 있다. 장로 가이오를 장로의 모델로 삼은 것은 단지 그 앞에 장로라는 타이틀 때문이었지만 그에 대한 기사를 읽다보니 장로의 모델로 삼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에 대한 성경말씀은 요한 3서에 나오는데 이 글은 사도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주는 글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에 대한 모델은 2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고 형제들을 신실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긴 사람이었다. (요한3서 1~8) ‘진리 안에 있다는 것’ 즉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그리 만만히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도 이제는 사탄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서 웬만한 분별력이 아니고는 감당해 내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웬만한 결단이 아니고는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가이오 장로는 또 한 형제 (나그네)들을 잘 대접한 것 같다. 대접하는 것도 쉬운 것 같지만 시간과 물질의 희생이 따라야하며 또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에 나오는 조시마 장로이다. 물론 그는 러시아의 수도사이기는 하나 내가 읽은 책에는 “장로”라고 되어 있어서 재빨리 가져온 것 뿐이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농촌의 아낙네들이나 하류 계급의 사람들이었다. 그가 신학이라든가 교리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겠지만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한 기도와 축복으로 사

###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이사회 회장(505-271-8031)

§월모임: 매월 세 번째주 금요일 오후 7:00 pm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주기도회: 매주 505-239-4401

§성서모임: 매주 505-515-4211

### 뉴멕시코 성경교회

서종철 목사

주일에배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시간: 5:30 am (매일)

§장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 87106

(505) 238-3551

###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

주일에배 1부 §시간: 11:30 am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에배 2부 §시간: 2:00 pm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시간: 11:30 am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목사

주일에배 §시간: 11:00 am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 주님의 교회

김익석 목사

주일에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Tue-Fri)

성경공부 §매주 월요일 10:30 am (한인회관)

§장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NM 87123

(505) 903-2297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기기찬 목사

주일에배 (Worship)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 파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지경일 목사

주일에배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505-453-5461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윤정렬 목사

주일에배 §시간: 오전 9:00 am §시간: 오전 11:00 am

주일학교 §시간: 오전 11:00 am

§장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505)

238-3551

###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시간:

§장소: 405 N. Connelly St, Clovis (575)-762-4510



람들을 돌려보내곤 하는 그런 장로였다. 이사야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40:1~2)는 예언과 같이 그는 위로의 말을 주며 사람들을 평안히 돌려보냈다. 잘 듣고 또 조심해서 위로의 말을 해 주는 것 자체로도 장로로써 귀한 섬김이라 생각한다. 또한 젊었을 때 자신의 몸종 아파나시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 이라든가 자신과의 결투상대였던 장교와 화해를 한 것 자체가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라 할 수 있겠다.

세번째로는 K장로님 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니 실제 성함은 생략하기로 하겠다. K장로님은 우리 가족이 Hurricane Katrina 때문에 곤란에 처해 있을 때 같이 아파해 주셨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가 나의 친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듯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시는 분인가를 알게 되었다. 이같이 나도 작게는 우리 오이코스 식구들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우리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싶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나의 훌륭한 인격이나 물질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며 또 그 아픔을 같이 나눌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 가정에는 K장로님이 그런 분이시다. 늘 몸은 멀어져 있지만 사소하게는 아이들 문제에서 부터 즐거운 일 기쁜 일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정에 귀한 장로님 이시다. 미래에 우리 두 부부의 모습이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존경하는 부부이다.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표본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닌가 싶다.

성정이 우리와 같았던 엘리야도 내게는 다가가기 너무 높은 봉우리로 생각된다. 위에 소개한 장로의 모델들을 통해서 한발 한발 진보해 나갈때 결국 주님께서 기뻐하실 성숙한 장로의 모습이 되어있으리라고 믿는다.

# ICHIBAN

## Japanese Restaurant

### 一番 Japanese Food & Korean F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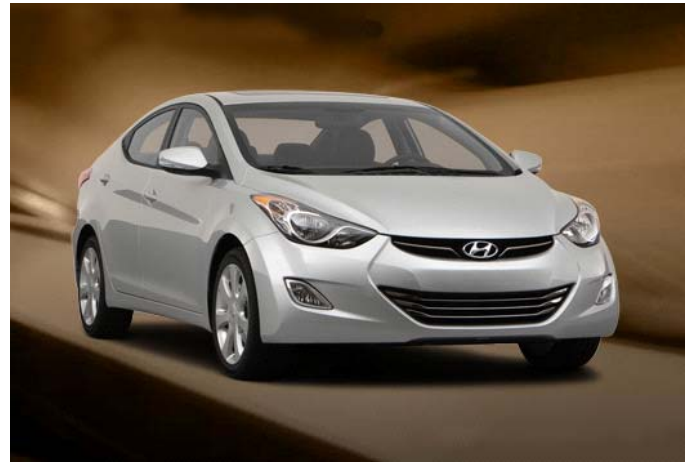
Phone (505)899-0095  
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 현대자동차 엘란트라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

현대자동차의 준중형차 ‘엘란트라(Elantra)’가 ‘2012 북미 올해의 차(2012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로 뽑혔다.

엘란트라는 2012년 1월9일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센터에서 열린 2012 북미 국제오토쇼(North American International Auto Show)에서 경쟁 최종후보로 올라온 포드 포커스(Focus)와 폭스바겐 파사트(Passat)를 물리치고 ‘북미 올해의 차’의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다.

모터쇼에 참가한 업체는 미국의 ‘빅3’인 GM, 포드, 크라이슬러와 한국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전 세계의 40여개 업체가 참가해 50여개의 브랜드와 500대 이상의 차량이 전시되었다.



‘올해의 차’는 북미에서 출시된 신차를 대상으로 캐나다와 미국의 자동차 전문기자 50명이 스타일, 실용성, 성능, 안전도, 만족도 등을 심사해 선정하며 자동차업계의 많은 상 가운데 최고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칼 브로어(에드먼즈닷컴)씨는 “엘란트라는 1만6천 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고연비 엔진과 강력한 파워, 세련된 디자인, 초장기간 워런티 등을 제공한다.

### PARK Fine Art

The Galeria 20 First Plaza NW Suite 27  
Albuquerque, NM 87102

문화센터 강의 안내

#### 성인, 주부취미반 (유화-oil painting과 파스텔화)

#### 임시반 (포트 폴리오준비반, 뎃생반)

강사: 박영순  
서양화가, 컬러링 Director,  
UNM CE oil painting 강사

□ 자세한 안내 문의 □

컬러링: (505)-764-1900    휴대전화: (505)-681-3859  
www.parkfineart.com    E-mail: contact@parkfineart.com

고급형의 경우 후방카메라와 뒷좌석열선(heated rear seat) 등까지 장착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는 제네시스도 2009년에도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된 바 있어 미국 외 브랜드로는 벤츠와 함께 최다 수상모델을 배출한 업체가 됐다. 작년에는 현대차 쏘나타가 최종후보에 올랐으나 GM 세비 볼트에 아깝게 밀렸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하는 '올해의 차'는 그동안 미국업체가 10차례(크라이슬러 4, GM 4, 포드 2), 유럽차가 4차례(벤츠 2, 폭스바겐·미니 각 1), 일본차가 3차례(도요타·혼다·닛산 각 1)를 차지했다.

높은 연비와 뛰어난 디자인으로 출시와 함께 큰 인기를 모아온 신형 엘란트라를 지난해 미국에서 17만2,669대가 팔려 1991년 진출 이래 최대 판매기록을 세웠다. 신형 엘란트라는 2010년 말 북미에 출시됐다. 캐나다에서도 작년 총 3만4,683대가 팔려 승용차 시장에서 4번째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의 차'와 함께 시상하는 '2012 북미 올해의 트럭'의 영예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에보크(Evoque)'에게 돌아갔다. 트럭부문 최종후보 3종은 에보크 외에 BMW X3와 혼다 CR-V였다.

(편집부 제공: 캐나다 한국일보에서 요약)

시세이도 화장품  
윤상옥 (Beauty Advisor)  
H: 890-4018  
B: 883-5900  
SHISEIDO  
Dillard's 백화점  
2100 Louisiana Blvd NE, Suite 100, Albuquerque, NM 87109

**축 개업**  
**Hair & Co.**  
5901 Wyoming Blvd NE Suite T  
Albuquerque, NM 87109  
(505) 797-8087  
(New Clients 15% Off)  
Hair Cut & Style  
Shampoo & Style  
Conditioning Treatment  
Color service  
Foil Highlight or Lowlight  
Permanent Wave & Style  
Permanet Hari Straightening  
Waxing

## 이달에 날리는 콩코드 종이비행기

이경화 제공

콩코드는 미국의 뉴욕, 워싱턴 DC와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사이를 정기 운항했던 초음속 여객기로 잘 알려져 온 비행기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해서 설계 제작했고 1969년 처녀비행에 성공하고, 1976년 정기 운항에 들어가서 27년간 운항했다.

여기에 소개하는 종이비행기는 잘 나르기도하면서 그 모양이 콩코드 비행기 모양이 되도록 몸체를 뽀족하게 하면서 가늘게 하였고 날개는 콩코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되는 삼각형 모양의 델타(Delta) 날개가 되도록 고안했다. 날개의 면적이 작은 관계로 빠른 속도로 날릴때 좋은 비행을 할 수 있게 했다.



콩코드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종이비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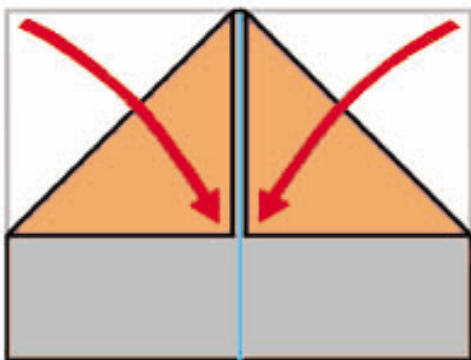
이 비행기는 필자가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Amazingpaperairplanes.com에 올려져 있는 종이 비행기중의 하나인데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어떤 종이비행기를 좋아 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 써머가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방문자 통계를 자주 들어가 보곤 했었다. 어느날 아침 회사에 출근해

서 방문자 통계를 들여다보니 한 시간 사이에 수백명의 방문자가 나의 종이비행기 사이트를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날에는 시간당 수십명 정도가 정상이고 오후가 되어야 시간당 100명정도선에 올라가는데 정상이었었는데 갑자기 이른 아침에 100배 정도로 늘어난 방문자가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되어 더 상세한 보고를 찾아보니 대부분의 방문자는 콩코드 종이비행기 페이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서 더욱 더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그 이유를 두, 세 시간 뒤에 보도 된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던 에어프랑스의 콩코드 여객기가 화염에 싸여 추락한 것이었다. 이 보도가 알려지자 유럽에 있는 어린이들이 나의 종이비행기 사이트의 콩코드 비행기를 방문하게 된 것이었다. 미디어의 보도가 어린이의 취미 활동에도 영향을 준 사례를 본 것이다.

이 사고로 인해 콩코드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러지 않아도 저렴한 요금으로 운항하는 점보제트와 경쟁에서 재정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던 차라 2003년 11월26일 콩코드의 운항은 중단하게 되었다. 콩코드 비행기는 여러 곳에 있는 박물관에 비치되어 항공 역사의 자료가 되었다. 시애틀에 있는 비행기 박물관에서 전시된 콩코드에 나도 잠시 올라가 본 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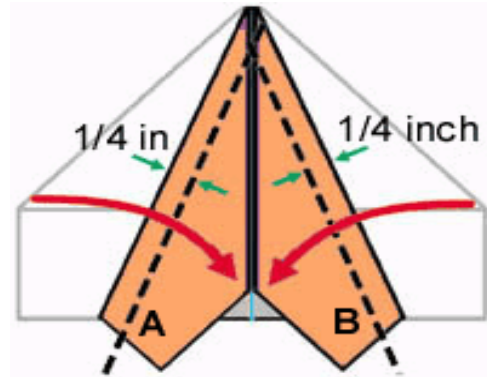
종이비행기 접는 안내는 나의 웹사이트에 있는 그대로 옮겼다. 칼라 인쇄된 종이로 접기를 원하면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How to fold a supersonic paper airplane"이란 제목의 동영상도 유튜브에 올려 놓았다. 동영상을 보면서 접으면 더 쉬울 것이다. 웹사이트와 유튜브 주소는 아래와 같다. [www.amazingpaperairplanes.com](http://www.amazingpaperairplanes.com)  
[www.youtube.com/amazinpaperairplane](http://www.youtube.com/amazinpaperairplane)

## HOW TO FOLD A SUPERSONIC CONCORD PAPER AIRPLANE? FOLDING INSTRU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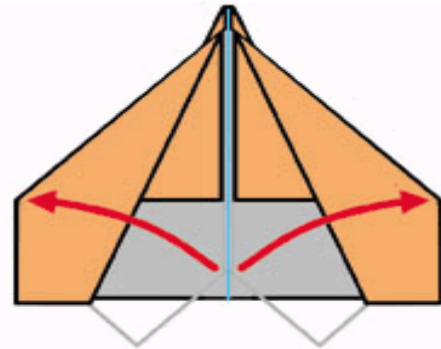


**Step 1**  
Start with an 8 1/2"x11" paper. Fold paper in half crosswise and unfold. Then fold the top corners inward to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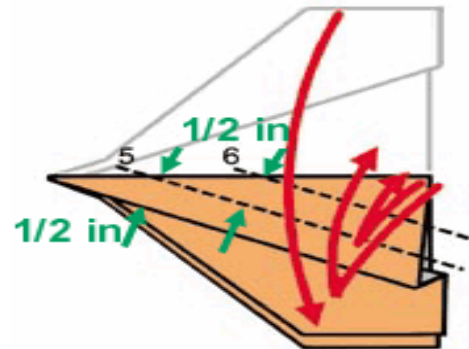
center crease.



**Step 2**  
Fold in the sloping edges to the center cr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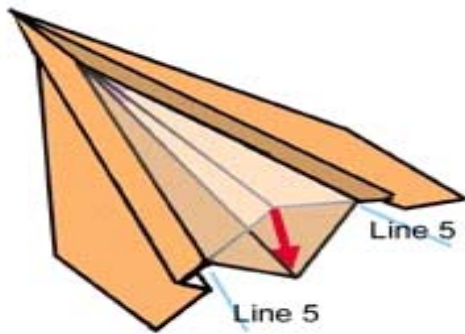


**Step 3**  
Make two valley folds along lines A, B which are shown in Step 2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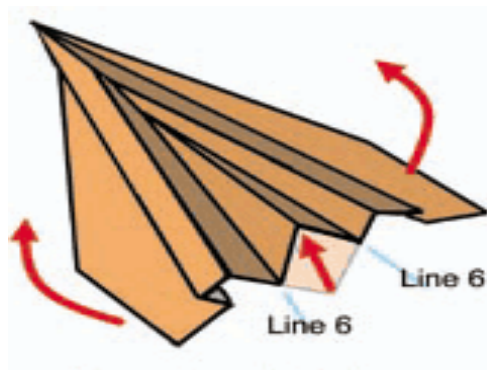


**Step 4**  
Fold the paper in half. Then fold down the top corner along line 6 and unfold. Repeat for lin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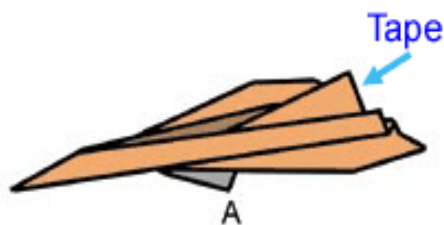




**Step 5**  
Push down the tail fin along line 5.



**Step 6**  
Bring up the tail fin along the line 6.  
Then fold up wings up along the edge on both sides.



**Step 7**  
The triangle flap A part may be used for a holding position for launching or can be used as landing gears. You may use a piece of double sided tape inside of the tail fin. Bend up the back of the wing for better flight.  
(Optional: If you use the downloaded patterned sheet, you may cut away

parts of trailing edges as indicated in the sheet.)



**BBVA Compass**  
**뉴멕시코 주에서 은행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한국말을 하는 김미경씨를  
만나보세요.**

**Think getting a mortgage should be easy? So do we.**

Here's an overview of what we can offer you:

- \* Professional Program financing up to \$1 million with low down payment for Doctors, Dentists, CPAs and Attorneys.
- \* First Time Home Buyer Program make no payment for 3 month, low down payment, and pay no origination or other lender fees
- \* Government Loans FHA and VA loans
- \* Construction Loans OneConstruction/Perm, Renovation/Perm and Lot Loans
- \* Primary residence and second home financing, including noncondos (no condotels)
- \* Variety of repayment terms available
- \* Super Jumbos financing available up to \$5 million
- \* Foreign Nationals (nonresidents) financing available up to \$1 million USD on single family residences and condominiums'
- \* Convenience apply onlin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n addition to simplicity and options, at BBVA Compass you'll get competitive rates and outstanding service. So whether you're buying your first or fifth home, getting your next mortgage will be easier than you ever imagined at BBVA Compass.

**Mi Kyong Kim Mortgage Banking Officer**  
**전화번호 505-206-9963**  
**mikyong.kim@bbvacompass.com**  
**www.bbvacompass.com/mortgages/mkim**  
**NMLS# 512561**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알버커키

### Albuquerque

#### 한국식품점

#####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 한인 식당

##### Korean Restaurant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BQ  
(505-265-9774)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BQ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Yen Ching: 4410 Wyoming  
NE, ABQ (505-275-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 건축/페인트 Painting

#####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단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dway SE ABQ, NM  
(505-242-8542)

#### 부동산 Realtors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최귀분 Gui B. Bonaguidi:  
The Ingles Company  
Realtors (505-828-1366)

####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BQ  
(505-883-9009)

####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Hair Dynamic(Ashley):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271-8031)

뉴멕시코 성결교회: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샌디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BQ  
(505-823-1678)

알버커키 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 주택융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BBVA  
(Office 505-206-9963)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BQ  
(505-271-2633)

####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Master Jaeshin  
Cho(505) 296-0336

#### 한의학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BQ  
(505-710-7504)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514-2900)

####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 화원/원에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 중재서비스

#####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505-797-2211  
커티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